

## 역경에 처한 국민의 과제

### ■ 이종윤 원로목사

-과거는 찬탄(讚歎), 현재는 개탄(慨嘆), 미래는 간구(懇求)-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계는 인간에게 확실히 고마운 선물이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재난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다. 지진 · 화산 · 해일 · 홍수 · 한발 · 태풍 등은 인간들을 종종 처참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연도 인간이 안심하고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참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대상은 인간이며, 흥금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도 안심하고 믿을 상대가 못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대상이 인간일 수가 허다한데 전쟁이 그 한 예가 된다. 좋은 전쟁 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외칠 정도로 전쟁은 어느 시대나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 추악한 전쟁의 요인이 바로 인간이다. 탐욕, 적개심이 일으키는 전쟁이나 포로 또는 국경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만행은 인간들의 음흉한 꾀계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 깊숙이 서 있는 산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질서 잡힌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전란의 와중에서도 “성도는 요동치 않는다” 고 한다. 과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천재지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란 중에서도 요동치 않는 성도는 그것들이 다 진정된 평화의 날에도 결코 방자히 언동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과거 구원과 혼란에 빠진 현재 상황과 미래 구원을 성도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칼과 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대각성운동, 8.15광복, 6.25한국전쟁, 오늘의 변영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우리도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영광스런 과거와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비극적 현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조차 조롱감이 되어 열방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갈등으로 성도들은 박탈감과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행함과 보상의 부조화에서 성도는 더욱 고뇌에 빠진다. 이러한 시련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주님을 잊거나 주와 맺은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 변심하여 주의 길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는데도 맹수가 들끓는 사망의 땅에 이스라엘처럼 우리 조국을 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닌지, 권선징악의 논리 만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모순에 오늘도 고민하며 갈등을 느끼는 성도가 많이 있다. 여기서 역경과 환난 중에 처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깨닫고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한국의 성도들은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도우소서” 그러기 위해 “깨소서” “일어나소서” 하고 촉구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주이심을 만민으로 알게 해 달라” 는 것이다. 진정 위대한 기도다.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신 예수님의 성숙한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핵문제에 말을 자주 바뀌가면서 북핵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1년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제는 “시간싸움 안하겠다” 고 까지 했다. 우리는 미국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어제의 영광에 칭찬하고 감탄하는 하나님께 찬탄(讚歎)하고, 오늘의 시련을 분하게 여기고 슬퍼하는 개탄(慨嘆)한 후, 어제의 영광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구원의 언약 성취를 위해 미래를 위한 간구(懇求)를 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한국장로신문 [제 1615호] 2018년 10월 20일 발매-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chan Yoo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Mark 15:37-39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Centurion’ s Confession” ..... Pastor
* Hymn .....	484 (Be Thou My Vision)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교회의 표지 II ”

### ■ 요 17:18-26, 고전 13:13

교회의 표지는 기쁨, 거룩,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표지인 선교와 연합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4.교회의 네 번째 표지는 선교(전도)다

선교와 전도는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씀과 조직 혹은 구조와 자비와 공활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대내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전도를 합니다. 기쁨과 거룩과 진리는 천국 입구에 도착하면 즉시 생기며 더 이상 기쁨과 거룩과 진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더욱 완전해지게 됩니다. 또 천국에 가면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고전 23:12에 의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같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은 Mission이라고 하며 라틴어로는 Mitto, Missi, Missum 라고 읽으며 파송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에 의하면 교회는 모여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흠어져서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 5.교회의 다섯 번째 표지는 연합이다

세상 사람들은 닭은꿀끼리 연합하는 구조적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 연합, Spiritual unity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면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는 주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자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함께 기뻐합니다.

### 6.교회의 여섯 번째 표지는 사랑이다

사랑은 교회의 6가지 표지 중 가장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위선과 가식이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게 될 것이며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죽은 정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제국주의적 문화 침략이 될 뿐이고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 교주와 교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와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표출해야 합니다. 사랑과 실천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책임을 못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봉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를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 맺는 말

설립 27주년을 맞은 서울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여섯 가지 기도제목대로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와 연합과 사랑의 마크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눅 3:4-6...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5번(구주강림1)...	다 합 께	* 찬 송 .....	다 합 께
송 영 Doxology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주기도송 .....	다 합 께
찬 송 Hymn .....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다 합 께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기 도 .....	김전진 권사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성 경 .....	인 도 자
2019년 섬김위원 임명식 .....	말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	서명철 목사	설 교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	설 교 자
* 찬 송 Hymn .....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안박수강김복희

## 수 요 예 배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안박수강김복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안박수강김복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임

- 권사회 총회 / 12월5일(수) 오후 2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스데반회 총회 / 6일(목) 오후 7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신청 / 12월 세례식이 12월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12월 2일(주)  
문답총정리는 12월 9일(주) 1시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9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임종완 군(임대철, 박은숙 권사의 장남)과 이수경 양(7교구 이한기 성도, 송정옥 집사의 장녀) / 12월8일(토) 오전 11시 와이티워킹벤션 5층 그랜드홀(900-0600) / 9호선 언주역 7번 출구</p> <p>2. 김경석 군(김형만 집사, 조준이 집사의 장남)과 백성은 양(7교구 백승갑 집사, 박길자 권사의 장녀) / 12월8일(토) 오후 1시 여의도웨딩컨벤션 3층(761-3800) /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p> <p>3. 하원우 군(하태열, 남분희 씨의 차남)과 김시원 양(10교구 김성철 집사, 양주화 집사의 장녀) / 12월8일(토) 오후 2시 명성교회 지하1층 호산나홀(440-9000) / 5호선 명일역 4번 출구</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29명	355명	176명	1,460명	136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1/2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 25일	헌 금	71,554,000	
	말씀봉사비		18,010,000
	금 여		33,084,000
	찬양대사례비		12,350,000
	교회학교사례비		9,770,000
	찬양운영비		2,000,000
	성 례 비		30,00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4,105,48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인 건 비		7,943,650
	복리후생비		113,100
	교통통신비		99,800
	수도광열비		156,110
	차량유지비		707,840
	소모품비		350,390
	환경유지비		205,800
	수선유지비		2,259,900
	식당운영비		2,428,090
	합 계	71,554,000	94,564,160